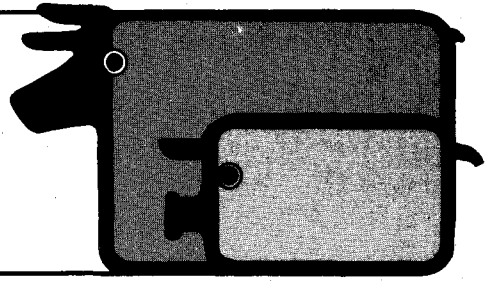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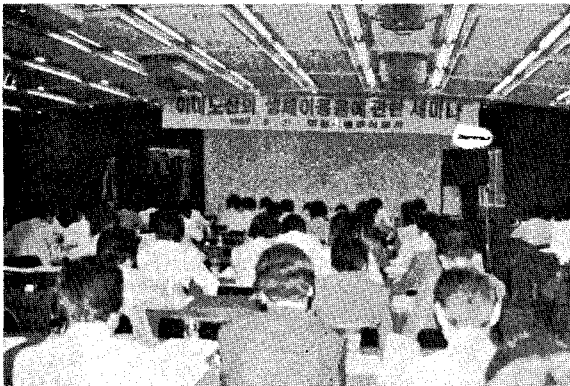


소식

축 산업 계



아미노산 첨가효과에 관한 세미나
-미원식품(주) 9월21일 63빌딩서 개최-



△아미노산 첨가효과에 관한 세미나

미원식품(주) 9(대표: 임병학)은 지난 9월21일 오후 63빌딩 코스모스룸에서 라이신의 생체이용율 및 아미노산 첨가효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서울농대 한인규박사의 '국내배합사료의 아미노산 함량' 외 7건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가축의 영양소로 단백질을 대체할 수 없는 필수성과 값비싼 영양소라는 점에서 최소량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단백질은 체내흡수 및 대사작용에 있어 궁극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그 영양 및 생리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최근 배합사료생산은 조단백 요구량보다는 아미노산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추세이며 아미노산 이용율에 근거한 사료배합을 작성이 필요하다.

사료내 아미노산은 어느 동물에서나 전량 이용되지 못하므로 한 사료의 단백질 공급능력은 궁극적으로 그 사료의 아미노산 조성과 이용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조단백질 수준이나 혹은 일부 아미노산 함량만을 고려한 사료 배합비 작성에서 오는 영양소의 손실을 줄이고 경제적이

며 영양소에 균형이 이루어진 사료배합비작성을 위해서는 유효아미노산 함량을 기초로한 사료배합비 작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미노산 이용율의 개념은 한 단백질의 아미노산중 체내로 흡수되어 성장 발육을 위해 이용되는 부분을 말하며 이것은 단백질 소화율이나 효소활력 저해인자의 존재유무, 가공처리 등에 의한 펩타이드 결합의 변성 및 장내에서 아미노산 분해, 방출속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아미노산 이용율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배합사료에 이용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못했던 실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 방법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방법의 표준화가 제시되고 있는 TEME방법(Sibbald 1976)으로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20개의 주요 원료 사료에 대하여 TAAA가를 측정한 것을 발표하였다.

그 중 소맥피는 소맥에 비해 조단백질 함량은 높으나 이용율이 떨어져 유효 아미노산 함량에는 차이가 없이 나타났고 수수는 사료가치가 낮았는데 이는 탄닌에 의해 아미노산 이용율이 떨어지고 또한 메치오닌과 라이신의 제한 아미노산 이용율이 평균이용율보다 훨씬 못미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모분에서도 제한 아미노산인 메치오닌, 라이신 등의 이용율이 평균 이용율에 미치지 못한 반면 합성 아미노산의 이용율은 합성 라이신과 메치오닌에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노산의 이용율은 사료의 종류와 동물에 따라 영향을 받아 닭이나 돼지에 있어서 옥수수와 밀의 이용율은 수수의 이용율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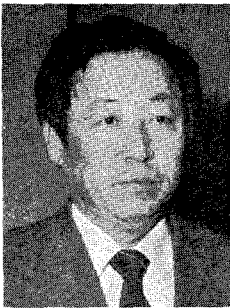
돼지의 경우 닭에 비해 수입밀기울, 60% 어분의 이용율이 닭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닭보다는 돼지의 이용율이 높았으나 라이신은 이와 반대로 돼지에 의한 이용율이 낮았다.

충남대 이봉덕박사는 육계사료로 병아리를 7주간 사양실험 결과 사료 단백질 수준에 상관없이 합성 아미

노산을 이용하여 필요한 사료 섭취량의 감소없이 사료 단백질 수준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단백질 효율을 유리하게 개선시킬 수 있었고 사료의 원료절감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합성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은 미원식품(주)에서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미국 등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20%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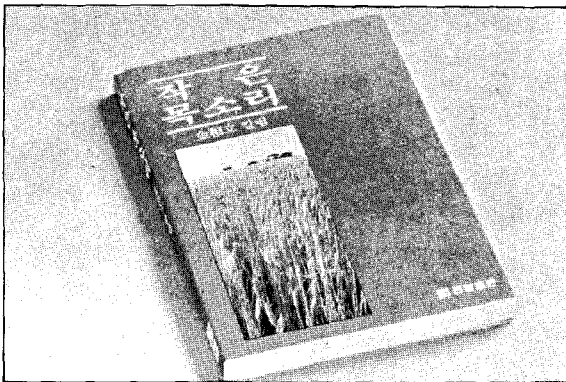
(구본영 회장)

9월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가 지난 9월29일(화) 오후 1시부터 축산회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양계업계동향에 대한 보고와 위생란 상표등록 대처방안, 육계수매물량(15만수분) 소비대책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특히 장기화조짐을 보이는 닭값 하락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하다고 참석자는 입을 모으고 적기에 산란노계도태 유도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립 칼럼집 「작은 목소리」발간



축산관련 전문지 등에 많은 칼럼을 기고해온 김상립(주)진양사료 전무이사) 씨가 최근 5년간(82년~86년)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묶어 「작은 목소리」라는 수상집을 출간했다.

저자 김상립씨는 책머리에 「마음맞는 사람끼리 가슴을 열어놓고 하는 이야기는 커다란 목소리보다 작은 목소리가 한층 더 어울릴 것이라 믿고 진정 작은목소리 이 글을 썼다」며 훗날 이름모를 산골짜기 어느 조그만 목장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손때묻은 '작은목소리' 이 책을 발견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었으면 무척 다행이겠다」고 소감을 적었다.

가격은 3천원이다.

• 구독문의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17-7 강남빌딩 502호 종합출판문화사 월간종합축산(전화 : 555 - 4556, 2316, 7560)

이스라엘, 계산물 생산쿼터제

세계에서도 가장 발달된 양계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계산물에 대한 생산쿼터제를 실시중인데도 잉여생산물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쿼터제도는 농장별로 평균생산실적과 국가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하여 생산물량을 배정하고 초과분 생산에 대해서는 정부보조의 혜택을 못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관장하는 기구로는 계산물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가 있어 수급조절 및 보조금배정을 하고 있다.

올림픽 앞으로 365일

88서울올림픽이 9월17일로 365일 후로 다가왔다. 조직위원회의 추산으로는 28만명의 외국인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약 30만명으로도 추산한다.

이 기간동안 닭고기나 계란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국내에서 공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 개최전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세계가금학회 총회에(WPSA) 참석한 세계의 양계인들이 한국에 다녀갈 것인데, 한국양계산업을 세계에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로 선용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 하

다.
365일이 긴시간 같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채란계 양계최고경영자연구과정 개최
- 한국양계연구소, 11월13일부터 -

한국양계연구소(소장: 김영환)는 제6회 양계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을 채란계 사양관리 부문에 대해 오는 11월13일부터 2일간 서울 한강호텔에서 개최한다.

1박2일 안 약 7백분간 설강되는 이번 과정은△ 양용어 설명△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방안△ 강제환우 △농장시설 △ 육성프로그램 △ 계분처리 △ 양계장 기록과 평가 등 채란계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기법에 대해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유료로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참가비 10만원으로 한 국양계연구소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 연락처: 한국양계연구소(전화: 452-2921)

육계농가안정협의회 대정부건의문 채택

육계농가안정협의회(회장: 최성복)는 지난 9월15일 서울경기양계조합 수원지부에서 지회장 회의를 열고 정부는 육계산업의 정책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육계업의 불황은 심각한 상태로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축협은 축산인의 권익과 취약점을 보완, 실질적인 생산자 보호측면의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역할을 다해야 하고 △육계의 경우 생산비의 80%를 차지하는 사료를 근대화된 유통구조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과거 20년간 육계농가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육계농가는 그동안 사료업체와 부화업체, 유통업체 등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제도모순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고 지적, 정부는 육계산업의 정책을 재정립하여 1차 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육성한다는 취지아래 생산자 권익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전국의 육계농가는 최근의 육계불황을 타개키 위해 육계전기사료 생산량이 2만톤으로 줄어들때까지 입추자제를 단행하기로 결의했다.

한일농원, 아바에이카 종계수출 호조
- 금년 목표량 20만수 무난할 듯 -

(주)한일원종농원(대표 최병현)이 금년도 수출키로 했던 육용계 아바에이카 종계가 수출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에 따르면 금년 1월 1만 7천여수를 시발로 하여 국내 최고성수기를 제외한 시기를 택해 적극 수출에 주력한 결과 9월말 현재 8만여수를 수출하였고 12월말까지 12만수에 달하는 물량을 주문받고 있어 연초에 세웠던 수출목표량 20만수는 무난하게 달성될 전망이다.

한일원종농원이 국내에서 아바에이카 종계를 수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사양환경 및 방역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동사의 영업방침이 국내 종계의 보유수수 적정선 유지 및 비수기 가격안정을 위한 적극적 수출 추진이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새로운 거위육종



거위·오리·칠면조 등을 육종하는 불란서의 TRILLOT농장에서는 여러종류의 거위와 오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거위의 간과(HF) 기름은 최고급 특수오리로 사용되고 있다.

거위는 이외에도 고기 맛이 좋고 체중이 5.5kg이나 되어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다. 고기 외에도 털등 버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 소량주문도 가능하다고 한다.

Telex 721027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출범 -인가요청 1년만에 창립총회 가져-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 김용태)이 지난 9월28일 마포구 서교동 「이화」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조합의 창립총회는 농림수산부가 그동안 협동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해왔으나 최근 사료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재인식, 설립을 인가해준다는 방침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동조합은 그동안 설립을 위해 김용태이사장 (신촌사료 대표)을 주축으로 27개사가 1년동안 농림수산부에 계속 설립인가를 요청, 1년만에 결실을 보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계란 「엑스호마」개발 -영양가 높고 노화도 방지-

일본 코로이드社가 동물성단백질을 주원료로한 우수한 종합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영양가 높은 물리적 인공계란 「엑스호마」를 개발하였다.

엑스호마는 계란의 연간비용을 4분의1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계란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이 가능하다. (보진신문 9. 7 자)

여름 농민대학 성황리에 끝내 -수강생 200여명 배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총재 : 류달영)에서 개최한 여름농민대학에 200여명이 수강하여 성황리에 지난 9월 19일 끝났다.

이번 농민대학에는 양돈·중소가축과의 교육생이 많아 농민들의 관심이 이에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 농업기술자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여름 농민대학을 설강 농민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동협회는 오는 12월18일 개최예정인 제2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시상할 금년도 농업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시·군농촌지도소장, 협회 시·도지부장, 시·군지회장 등에 의뢰했다.

업 계 단 신



김성훈 원장

○김성훈교수 사회개발대학원장 취임 : 김성훈 중앙대 산업대 농업경제학 교수가 최근 동대학 사회개발대학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주)세원물산 알미늄단열재 국산화 성공 : 수년간 알미늄 단열재를 취급하던 김희순씨가 지난 8월중 (주)세원물산을 설립했다.

동사는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알미늄 단열재를 호주와의 기술제휴로 국내 생산개발에 성공하여, 금변양축가들에게 국산 알미늄 단열재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번에 동사가 개발한 알미늄 단열재는 수입 단열재의 단점을 보강하여 국내기후와 환경에 맞도록 만들었으며 절찬리에 시판중이다.

동사는 이와 함께 수질을 좋게하는 정수용 맥반원석(마내톤)도 시판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세원물산(557-7871, 3018)으로 문의바람.

○과학시스템·과학원종(대표 : 박만후) : 동사는 지난 7월1일부터 세계최대의 육종회사인 유리브-리드(Euribrid)사와 한국총판계약을 맺고 육종 종계인 하이브로 갈색산란종계, 하이섹스 갈색·백색산란종계, 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앞으로 하이포 하이브리드종돈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종계의 유전적 소인을 100% 발휘시키기 위해 최신 원종계 생산시설과 철저한위생관리 시스템을 마련중에 있으며, 국제수준과 동일한고품질의 종계공급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농장: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대사리
- 서울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능동 247-1
(전화: (02) 446-5463)

한편 동사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 김창웅: 개발부장(전 천호부화장 시설과장)



장 경 국 이사

○장경국씨(선진축산(주) 이사): 본지 편집위원이며 前두산곡산 사료생산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경국씨가 지난 9월1일부터 선진축산(주) 사료영업·생산 담당 이사로 영입되었다.

○고창양계(대표: 신흥종)본사직통전화개설: 동사는 효율적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10일부로 고창본사에 직통전화번호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다.

- 전화번호: (02) 232-3511
- 한편 지난 9월14일부로 다음과 같이 직원 채용이 있었다.
- 김시현상무: 서울사무소장(전 농수축산신보 근무)
- 선미화: 단국대 산미과졸

○송지산업(주) (대표: 김복한): 축사 및 하우스 시공업체인 동사는 지난 9월1일부로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주소는 종전과 동일하다.

- 전화번호: 413-7000, 2222
418-2927~8
-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석촌동 290-7

○한일사료공업(주) (대표: 최병덕): 양질의 배합사료를 공급, 양축가 소득증대에 주력하고 있는 동사는 3/4분기부터 직원자녀 30명에 대해 등록금 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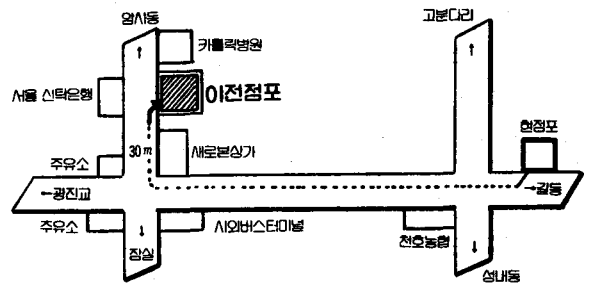
을 지급기로 했다.

동사의 금번 장학금지급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애사심고취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수해지구 실수요자들에게 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대양축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양지가축약품상사(대표: 김인영): 지난 9월 19일부로 동사의 판매점 및 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 이전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57-8
- 전화번호: 478-1938, 2208



○코린화학(주) (대표: 김병석): 지난 8월14일부로 동사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고 전화번호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이전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426-2 삼원빌딩4층
- 전화번호: 583-2161~4

○축산신보(사장: 윤봉중)창립 2주년: 축산인들의 유익한 대변지로 창간된 축산신보가 지난 9월28일부로 창립2주년을 맞이했다.

○이수헌계장(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지난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본의 양돈업계를 돌아보고 귀국.

○김기용씨(퓨리나코리아 전무): 지난 9월6일부터 13일까지 미국 퓨리나본사 영업·마케팅회의에 참석하고 귀국.



김희진 실장

○삼화농원 (사장 : 배성황) 직원채용 : 동사는 사세확장에 따라 각종 업무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대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난 9월7일자로 다음과 같이 기획실장을 신규채용하였다.

- 기획실장 : 김희진 (전 고창양계 근무)

○(주) 진양사료(대표 : 강성배) : 동사는 지난 9월1일부로 다음과 같이 직원승진발령을 단행했다.

- 우석성 : 영업부 부장
- 차군식 : 영업부 과장 (경산출장소)
- 박달근 : 생산과 과장
- 윤성길 : 총무부 경리과장

○한풍산업(주) (대표 : 최죽송) : 동사가 지난 9월5일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상반기 영업목표달성 기념식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영업목표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영업부 2명과 학술부 1명에게 고급탁상시계가 부상으로 수여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사료공장 및 양축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동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자 각자가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이어 단합대회를 통해 직원 간 협동정신과 애사심을 양양하였다.

○신정수씨 (한국냉장(주) 사장) : 지난 9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돈육수출을 위해 일본의 업계현황 및 시장조사를 마치고 귀국.

○정동근회장 (대주산업(주)) 별세 : 지난 9월14일 대주산업(주) 정동근회장이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주)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 : 한화섭) : 동사

는 지난 9월18일자로 구로동 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 이전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번지 사학연금회관 502호
- 전 화 : 782-7501~5

○한양유통 명칭변경 : 한양유통이 최근 CIP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상호를 「한양스토아」로 변경하기로 했다.

신 제 품

사료첨가제 「오로확 B₁₂」 시판

유한양행 (대표 홍병규) 농축부에서는 최근 광범위 항생물질 사료첨가제 「오로확 B₁₂」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광범위 항생물질 Aureomycin과 비타민 B₁₂의 상호협동작용에 의한 성장촉진효과가 탁월할 뿐 아니라 가축·가금의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닭, 돼지, 소에 있어서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효과가 있으며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농장 전용 특수제품5종 생산시판

한국화이자(주) (대표 : 김중배)는 지난 8월부터 농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5종의 농장전용 특수제품을 생산, 시판하고 있다.

특수공법으로 제조된 신제품은 수용산 고단위 항생제인 「테라산란강화제」, 「테라마이신 고농도분말」과 사료첨가용 광범위 항복합제인 「테라마이신-100」, 「네오테라 50/50」을 비롯하여 양돈전용 성장촉진 및 하리예방제인 「메카독스 프러스」등 5종으로 농장의 환경과 여러가지 특수 여건하에서도 적합하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동제품은 37℃ 고온, 상대습도 75%의 고습도에서나 대기습도 50℃ 고온의 악조건에서 3개월간 방치해도 습도나 역가가 유효하도록 특수 알미늄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사료첨가시 골고루 섞이고 분진발생이 없도록 특수공법으로 제조된 고농축 제제이다.